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에베소서 3장7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5-4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89년도 충현제자훈련 오픈
8월24~25일 제1차로 교역자팀부터 실시

본 교회는 89년도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제1차로 훈련을 받게되는 교역자팀은 오는
24일(목) 오후6시부터 25일(금) 오후6시까지
만24시간동안 충현기도원에서 합숙하며 교육
을 받는다.
또 장로팀도 28~29일 훈련을 받을 예정이
다.
이번 훈련에는 직분자 전원(교역자·장
로·안수집사·권사·남여서리집사·권찰
·교사·찬양대원·'90년 신입 임직자 후보
전원)과 평신도 중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료자도 재훈련이
가능하며 매주 1회씩, 오는 11월 17일까지
11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충현제자훈련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참가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등록비는 1인당
5천원이다.(단 충현훈련복은 별도 구입해야
한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이며,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3장7절, 찬송은 350
장(나의 죄를 정결하사)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직분자는 반드시
충현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며 1990년 직분자
임명은 가능한 한 동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자훈련 실시일정은 다음과 같다.
※성경연구원 광고-교사양성부, 주간성경
공부는 지난호(24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실시일정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날 짜	24-25	21-22	28-29	2-3	5-6	8-9	12-13	26-27	2-3	9-10	16-17
대 상	교역자	직분자	찬양대원				직 분 자				평신도

여름계절학교 다음주간까지
장년1, 2, 3부, 에바다성인부 끝나

지난주간에도 89년 여름계절학교가 진행되
었다.
8월14~15일에는 장년3부와 에바다 성인
부가 수양회를 개최했고, 18~19일에는 장년
1, 2부가 수양회를 가져 은혜의 시간을 가졌
다.
에바다 성인부(부장/박인세장로)는 제1회
여름수양회를 14~15일 교회 소석관 109호
에서 개최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거듭난 인
간, 구원 확신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었다.
예배와 특강, 조별토론 등으로 진행된 동
수양회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그리고 "성
경적 결혼관"에 대하여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김학진목사, 임태주전도사.
장년1부(부장: 김재명장로)와 2부(부장:
윤인현장로)가 공동으로 하기수양회를 지난
18일~19일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안에서 하나되자"
란 주제로 강사는 김학진목사, 에원길목사이
다.
거룩한 교제, 성숙한 신앙, 질량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된 동 수양회에서는 저녁부흥
회, 체육대회, 성극경연대회, 산악기도회,
발레 토의, 반말 찬송가부르기 대회도 가졌
다.

해당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8월27일까지 접수마감
오는 9월8일(금) 실시될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인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 준비위
원회(위원장: 김원선장로)는 참가신청서 마감
을 오는 8월27일로 못박았다.
신청서는 각 교구 간사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들은 취합된 신청서를 교구 사무실
로 제출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20일(주) 오후3시 주간충현 편집국서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성극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 안내

No	행사명	일시	주관부서	행사내용 및 준비사항	해당준비위원장	참가신청 접수마감
1.	기념감사예배	9월3일(주일)	예배위원회	1부~4부 예배		
2.	음악예배	9월3일(주일) 오후7시	예배위원회	저녁찬양예배(합창 및 독창, 기악연주)		
3.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9월8일(금) 오후2시	교구위원회	합창곡 지정곡 542장 1절	김원선장로	8월27일까지
4.	선교유배대회	9월24일(주일)	교육위원회	①민족복음화 ②공산권선교 ③세계선교	염필청장로	8월27일까지
5.	전교인성경암송대회	10월1일(주일)	교육위원회	마태복음 5장~7장	박승준장로	9월17일까지
6.	성극경연대회	10월7일(토) 5일(주일)	교육위원회	신구약성경, 기독교복음에 배치되지 않은 내용	손경수장로	8월27일까지
7.	장애자되기 바자회	10월20일(금) 21일(토)	구제위원회			

새가정부 세미나
27일 오전11시 소석관201호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박승준장로)에서
는 장년1부와 연합교육을 하기로 하고 오는
8월27일 오전11시 소석관 201호실에서 주제
『염신중절(낙태)은 왜 죄악인가!』의 세미나
가 열린다.
1부 김학진목사의 주제강해가 있고 2부
비디오상영 『침묵의 절규』(약 25분 상영)
가 있는 후 3부 전문의의 해설 손 철집사
(분교회 의료전도회장)의 증언이 있다. 온교
인은 물론 불신자까지도 참석을 누구나 환영
하고 있다.
<본 세미나의 개최의의 및 해설은 3면
기사 참조>
계간충현 여름호 발행
계간『충현』여름호가 발행되었다.
여름호의 주요 기사를 보면 이종윤위임목
사의 메시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김창원원로목사의 시편강해 『성도의 담대한

기도』가 실려있다.
그리고 특집① 교육은단으로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의 모범(송태근목사), 교회학교의
원형(주선애교수), 우리교회학교 교육을 말한
다의 좌담회 기사가 게재되었다.
특집② 지은성대행진 정보, 특집③충현올
림픽 사진 등이 실려있으며, 그 이외에 충현
성도들의 주옥같은 글들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위임목사님께서는 신학, 신학 분야
의 세계적 학자들의 모임인 세계 신약학회
(S.N.T.S.), 국제 복음서학회와 미주 위싱턴지
역 한인 복음화대회 및 교역자 세미나 인도를
은혜로히 마치시고 지난 15일 무사히 귀국해
시면서 그동안 배후에서 뜨거운 기도로서
후원하여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와
문안의 인사를 드린다고 본지에 전하셨습니다.

이종윤위임목사 귀국
모든 일정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종윤위임목사가 지난 15일 오후4시20
분 델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7월24일 출국하여 만22일만에 귀국한 이종
윤위임목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세계신
약학회(7월24~28일), 세계복음서학회(7월2
9~8월2일)를 참석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에서 워싱턴복음화대회(8월11~13
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케 된 것이다.
이목사는 해외선교여행 체류기간 동안
충현가족들의 기도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
다고 밝히고, 예정된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감사한다고
했다.

경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손경수장로)
는 준비회의를 8월20일 오후3시 「주간충현」
편집국에서 개최한다.
해당되는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석을 바라
고 있다.

교수선교회 속회총회
20일 오후5시 선교관 405호
지난주(8월13일) 창립총회를 가진 교수선
교회는 8월20일(주일) 오후5시 선교관 40
5호실에서 속회총회를 갖는다.
해당되는 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
다.

오늘 저녁예배시
벤전서 강해시작
오늘 주일(20일) 저녁예배부터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벤전서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
다.
지금까지 해오던 빌렘보서 강해를 끝마치
고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벤전서 강해는 더위
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신앙생활에
활기차고 신전한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보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현 유치원 원감 채용
▲자격
1. 세례교인
2. 유치원 교사 6년 이상 유경험자
3. 연령 45세 미만
▲접수: 1989. 8. 25일까지
▲접수처: 충현유치원 사무실(소210호)
충현교회사무국에서 접수함

소망부 여름수양회
25~26일 충현기도원
교회학교 소망부(부장/장모용장로)는 제1
회 여름수양회를 오는 8월25~26일 충현기
도원에서 개최한다.
『거룩한 백성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김영
구목사, 김정순전도사가 주강사이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배 성경강해 시리즈⑦



본문 / 요 6:1-15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은 유월절 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했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유월절을 대단하게 지켜야 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필 유월절 직전에 행하신 이유, 요한이 유월절이 가까왔다고 하는 이유를 왜 여기에 명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권능이 있다고 말하지만(Lip Service) 어떤 일을 만나면 폭삭 주저 앉아서 좌절에 빠져 버립니다.

지금 군중이 모인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열도입니다. 음식을 사먹을 식당도 물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길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풍성합니다.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히 주십니다(빌 4:19).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인간의 자원이 다 고갈되어 마치 고아처럼 방황하고 있다면 주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3.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군중들을 떼를 지어 앉힌 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배고픈 군중들에게 있었습

반면에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냉랭해져 있으며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남을 대하는 눈길도 다 식어버려 우선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차가운 인생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고독한 처지에 떨어져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은 형제들이 구경거리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우리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울고 또 울다가 음부에까지라도 내려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녀들이 애굽땅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므온을 인질

인간적인 자원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교만한 태도

서와 요한 복음서는 각각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기적 자체에 큰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성격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육신의 양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터득해야 할 몇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1.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서 지금 오셨습니다. 무리들아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때는 이미 해가 쬔고 사람들은 시장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빌립을 불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자원의 고갈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아내도 남편도 떠나가고 나를 도와줄 친구도 떠나가고 내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감정적 자원까지 고갈되어 매마른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신경은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자신의 템포를 잘못 조절해서 혈압이 올라가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강박해졌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수납이

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을 받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의 조직이 훌륭한 것도 귀중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절망에 처했던 생명이 구원의

로 빼앗깁니다. 간첩이라고 오해를 받아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야곱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연극을 보는 관객입니다. 연극이 진행될 때에 관객은 스토리의 진행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연출자나 혹은 작품을 쓴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객은 아슬아슬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단을 하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해피엔드로 끝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사실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돕고 계셨고 기근을 대비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만나 즐거워 웃을 날을 야곱은 모르기 때문에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세전에 계신 창조자로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풍성한 자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형편에 처해도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와 공급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수납이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만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원이 다 고갈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늘 모자란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회복을 받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관심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할망

정 내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사람을 가능하면 거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 절망에 몸을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자아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6:6).

"이백 데나리온을 갖다 주고 떡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거니와 돈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7절)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 속에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인간의 자원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만한 태도요 잘못된 발상입니다.

빌립의 대답 속에는 권능의 주님에 대한 불신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든 만아들과 초태생을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기에 5천명 먹일 떡을 좀 가져오라고

2.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자원이 고갈되었어도 하나님께는 자원이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인간 차원으로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추수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굶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절대 자원이 빈곤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한 것은 고대사회에서는 복종의 복이었습니다(사 1:19, 55:1-2, 시 22:26).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6:35)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지대에서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불리 먹고서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엔 또다른

영어주일학교 개강

※ 교육대상: 외국인 및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는자와 받은 자

※ 개설일자: 1989년 9월 첫주 영어예배 후 10시30분부터

※ 개 설 반: 5개반

유치부(Pre-School: 3-6세)

유년부(Primary School: 7-9세)

초등부(Primary School: 10-13세)

중·고등부(High School: 13-18세)

청장년부(Adult: 19세 이상)

※ 연 락 처: 영어예배위원회(나사렛홀 108호)

※ 영어예배에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Our English-speaking Sunday School will begin on the first Sunday of September (1989. 9. 3).

English-speaking students of all ages, as well as Volunteer Teachers are encouraged to contact Rev. Ray miles at 542-4181 Ext 353 for more information.

여전도회활동 이모저모

8월9-10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5리에 있는 기린대교회를 위문 방문하기 위하여 campfire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사랑과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흐르는 시냇가에서 세수를 한 후에 김정순 전도사님의 '말세지말'이란 제목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이와같이 이곳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심정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주시어 자칫 우리의 이름이 주의 이름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깨닫게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어서 식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8시45분쯤 그곳을 출발하였다.

돌아오는 길 한계령을 지나 남설악을 지나 오면서 속초를 지나 설악산에 잠깐 들러 천금성과 울산바위의 전설을 듣고 설악해수욕장의 망망대해를 지나서 새로 뚫린 미시령고개를 굽이 굽이 돌아오를 때 스쳐가는 창밖의 풍경은 마치 병풍을 두른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리는 내리막길을 달리면서도 조금도 염려스럽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김영구목사님, 김정순전도사님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디베라바다에서 베푸셨듯이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결실의 열매를 맺게하심을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통하여 높은 신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하사 신앙의 성장과 신앙체험을 재확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8월9일 새벽 6시에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8시 정각 김정순 전도사님과 김영구목사 사모님, 은하, 진하, 그리고 에스더 6지회 임원 12명, 김도

에스더6지회와 기린대교회

세 집사님 모두 17명이 김영구목사님의 출발 기도로 현지로 향했다.

숨가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창가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새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팔당댐을 지나 2시간 반만에 홍천을 거쳐 철정검문소에서 윤병국목사님, 황은선목사님과 두분의 장교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잠시 서로 소개의 인사를 나눈 후 목사님의 차를 선두로 하여 전방으로 또 전방으로 달렸다. 오미재 고개에서 잠시 내려 목사님으로부터 6·25사변 당시에 이 고개가 최대이 격전지였다는 말씀에 숙연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후방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적은 힘이나마 우리가 옴으로써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잠시후 12시30분 경 부대에 도착하여 그곳

의 최 대선 대대장 최영식과장 군종사병 외 여러 장병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나서 정성 들여 마련한 식사를 하였는데 산채맛이 각별히 훌륭했다.

이곳 기린대교회는 3군단 사령부 내에 있는 군교회로 윤병국 목사님이 시무하시고 민간인임을 포함하여 성도 수가 약 400명쯤 되며 예하 부대에서 각기 소규모의 교회를

모두 윤병국 목사님의 관할하에 주일마다 순번으로 연이어 설교를 담당하고 계신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군단이 지원하는 공병 대대내(137대대)의 동산교회로 군인가족을 포함하여 성도 120명이 모이는 아담한 교회이며 황은선 군목이 시무하고 있다. 오후 3시에 이 동산교회에서 황은선목사님의 사회와 김정순전도사님의 은혜스런 특별기도, 다함께 찬송가 358장을 부른 후 우리 전회원이 468장의 특송에 이어 병사들의 독창과 3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윤병국 목사님의 열왕기하 2:1-12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앰프와 선풍기, 떡과 과일을 전달한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곳은 방동골짜기라고도 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이며 이글거리는 태양열에 까맣게 그을린 병사들의 피부는 자랑스럽다고나 할까.

잠시 후 목사님과 대대장의 안내로 마당

바위에 가려고 군용 타이탄트럭(12인승)에 방문자 모두가 포개어 앉아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 오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즐거웠다. 아름다운 산과 넓은 바위 위로 떨어지는 3단폭포,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맑은 물이 있는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며 다시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섭리에 감탄하였다. 귀대도중에 방동약수터란 곳에 안내되어 약수도 마시고, 돌아와 병사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러한 모든 대접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 값지다는 생각에 더욱 감격스러웠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대대로 돌아오니 여러가지의 즐겁고 다양한 recreation과



△ 에스더6지회 회원들이 기린대교회를 방문하여 기념품을 전달했다.

님, 김영삼장로님, 에스더협의회, 한나6지회 형님들과 김모세집사님 또한 수고해준 우리 에스더 6지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주님께 칭찬받는 6지회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지금도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병사들을 위해 늘 군선교에 애쓰시는 윤병국목사님과 그 교회 그리고 137대대 교회장병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에스더6지회 제공)

장로논단

『낙태는 죄악』

박승준(장로·교육위원회서기, 새가정부 부장)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가을이 오면 산부인과에 문턱이 전에 없이 바빠지는 오늘의 실정이다. 이는 미혼모의 고민, 임신중절을 요청(?)하는 발길도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절 이른바 낙태-사랑의 생명, 생명의 태동이 꺼져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죄의 면역성이 너무나 크다보니 오히려 죄를 죄라고 뉘우치지 못하는 수치스런 현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낙태수술로 죽어가는 태아의 비명소리 들어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충현의 가족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귀중함을 속히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낙태는 죄악이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제 하루에도 수많은 새생명을 앗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라도 눈을 뜨고 태아의 신음하는 절규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병든 사회, 빛을 잃어가는 생명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이야말로 우리의 무지함의 죄의 결과요 시간을 다투어서 지은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어리석음을 깊이 반석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참 뜻인 하나님 사랑, 인간사랑, 생명사랑의 귀한 뜻을 새롭게 적립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새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태아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까지 읽을 수 있으며 임신 6개월쯤부터는 적극적인 정신활동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태아는 어머니의 심장에서 기도와 찬송소리를 듣고 자란다.

청력 학자 미셸 크레멘스박사에 의하면 비발디,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베토벤, 브람스, 록음악을 싫어하는 태아의 움직임이 격렬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는 미래의 인류의 재산이며 주역이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이 절규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이 세대여! 특히 젊은이들이 부모되기 전에 반드시

알고 확인하기를 바란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라 기회를 망설였다. 그러나 들려주시는 음성은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임태한 지 3주일만 되면 심장의 약동이 시작되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오늘의 세대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출생케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응답인 것이다.

통곡하는 태아들의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주님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더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우리들이 되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작은 운동이 햇불로 번져 전국의 교회마다 메아리쳐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지원교회탐방

아산 대광교회

바울 7·11지회 임원들

바울7지회, 11지회가 공동으로 매월 지원하고 있는 충남아산군 염치면 대동리소재 대광교회(목사: 정광성)를 두번째 방문하고 지원교회 보조를 통한 복음사역의 필요성을 더 한층 절감하게 되었다. 수고한다는 말을 들으며 고생하는 일과 필박을 당하며 교생을 하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금번 방문을 통해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교역자 정광성 목사 내외가 대광교회에 부임한 지는 만 4년이 되었다.

온양 시내에서 41km 떨어진 현충사 인근마을 토속신앙과 종족이 모여사는 80여 호의



△ 바울 7·11지회 임원대표와 충남 아산 대광교회를 방문하고.

빈궁한 마을이다.

부임후 4년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한 실정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중한 소임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엄습해오는 소명 앞에 눈물바쳐 온 4년 간의 세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이기에 겪어온 일들은 값진 눈물의 세월이었다고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백처럼 들었다. 현재 장년 8명, 주일학교 학생 30명 정도의 교세이다. 그간 친구의 보조와 온양읍소재 교회에서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약간의 사례금을 받아서 교회를 유지해왔다고 하신다.

자립을 위한 목표설정에 대해서 물었다.

“심는데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증 하신다. 토속신앙 속에 자리잡고 있던 무당 3명 중 2명이 죽고 1명은 도망갔으며 목사님을 필박하던 집에서 큰 재앙이 생겨서 이제는 재앙이 두려워 필박을 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하신다.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니 의료선교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 마을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두 가지 계획을 생각했다.

1. 교회에 기본적인 상비약 비치
 2. 주기적으로 무료진료 실시
- 이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방문한 저희들이 동의했다.
- 과일을 대접받으며 벽촌 대광교회 부흥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금 10만원과 7지회 회원, 김종록 집사가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 헌납한 10만원을 전달하고 다시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를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제 바울7지회, 11지회 온 회원은 물론 충현의 온 성도가 대광교회 부흥을 위해 그리고 남여전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성원을 해야 할 것이다.
- 방문자/ 7지회 임봉남집사, 박인건집사, 11지회 김여순집사, 최만수집사

셋째, 한국교회에서의 선교와 방향

한국에서 1907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자 을사보호조약을 통하여 우리가 일제 하에 있게 되었고 그후에 계속하여 한·일합방의 비극적인 사태가 잇달았다. 그 과정 중에 1907년에 민족의 비운을 안은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한국 예수교 장로회가 조직되는 역사적 시기였다.

8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선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급작스레 변해가는 선교활동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과 선교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선교비 지원에 있어서 선교지역과 임무에 따라 탄력있는 조절이 필요하다.

이제 기독교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겨자씨가 크다 못해서 고목이 되어버렸다.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져야 할 터인데 아직도 지구라는 이 땅덩이의 2/3 속에는 미처 누룩이 퍼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선교의

대 과업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위탁된 임무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중심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들려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산 권위로 임하고 승인되어서 교회와 선교와 성례전 목회와 교육세계전도와 세계정책 가운데서 정당하게 해석될 때에만 복음이

앞서 헬라인들이 단일신론의 사당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전통적으로 숭배해 온 무가치한 신이나 신비종교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한 채 형식에 그치는 혼합종교의 과정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로마의 민중종교들이 복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의 고유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가르치며 순종케 하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후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하는 전체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활동이란 신자들의 생활처럼 포괄적인 것이며, 이것이 개혁주의적 선교관이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인 만큼 복음전파의 방법도 다양하다. 이 세대는 약한 세대임에 틀림없다. 이제 곧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날도 가까웠다. 선교나 전도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끝이어서 "내가 만일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고 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외쳐야 하리라.

최성철(청년부 회원)

독자투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본 한국선교 2세기 ②

개인생활과 민족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를 갖게 되며 이 말씀이 제대로 응용될 때에 선교는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또한 제3세계로서는 다이나믹하게 세계로 흩어져가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의 앞으로의 선교적 의의도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토속적 신앙이 본래 기독교 복음과 상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널리 급속히 전파되는데 공헌한 '발'의 역할을 했었던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겠다.

결론으로 말해서 선교란 단순히 복음을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8월 25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4과 초대교회의 신앙

성경: 사도행전 2:1-4, 엡 2:20-22

요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찬송: 340, 359, 35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셨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사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친히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시므로써 비로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1.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영혼구원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요 3:16)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죄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히 기도예 힘쓸 때에 오순절이 이르매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행 2:1-2)

(3)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특히 성경 기록의 역사를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경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2. 초대교회의 신앙

(1)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드렸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행 2:42)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였고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2)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행 5:42)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3) 봉사에 힘썼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행 2:45) 오늘날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생각하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4) 모이는데 힘썼습니다.

행 2:46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서 10:25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대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3.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으려면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초대교회의 창설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2.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공동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교회를 세워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부터 초대교회 당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하시고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변화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